

한여름에도 윤림동 미술관거리 절찬 '전시 중'

드영미술관 '김도영 기획초대전' 시절의 풍경과 추억 한 화폭에 무등현대미술관 '정송규 개인전' 형형색색 조각보 통해 규방예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 동구 윤림동 미술관거리. 길가에 나란히 관람객을 맞이하는 드영미술관과 무등현대미술관이 한여름에도 전시를 이어간다. 미술관으로 여름 바깥길을 떠나보자.

먼저 드영미술관은 김도영 기획초대전 '그리움을 그리다'를 오는 20일까지 연다. 드영미술관 관장 김도영 씨가 오랜만에 작가로서 선보이는 전시로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그리움'이라는 화두 아래 제작된 65여점의 평면(회화) 작품이 걸렸다. 산천이 아름다운 무등산 아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그렸다. 아련한 추억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일상의 풍경과 나무, 꽃, 산, 새 등의 주요 오브제가 작품의 모티프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김도영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누구나 유년 시절은 있다. 나의 유년 시절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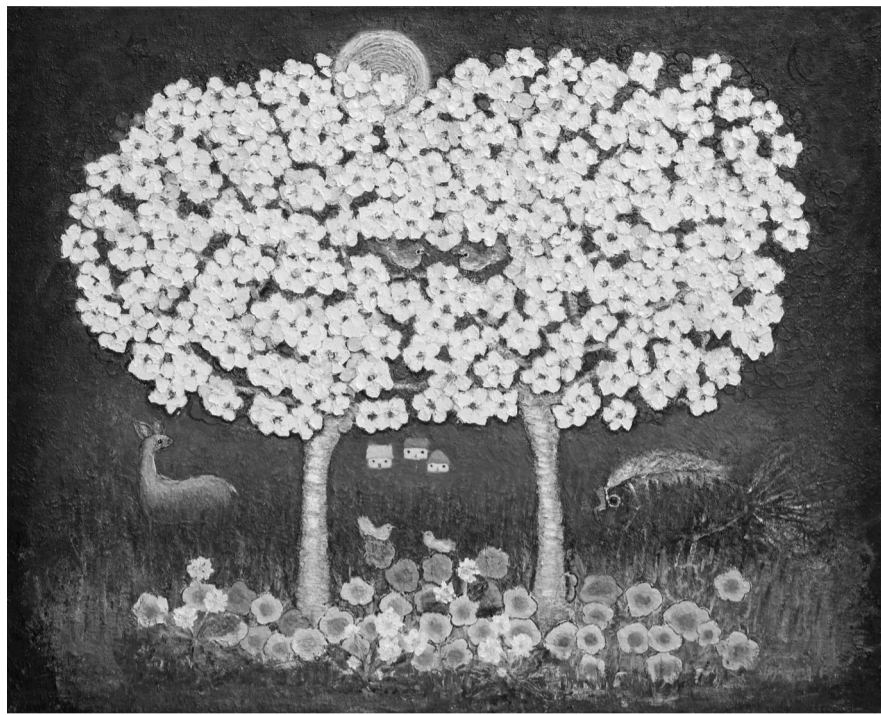
억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봄이 되면 아버지 지게 위에 만발한 진달래꽃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켜 그때 아버지 사랑을 꽃과 새로 표현한다. 지난날의 추억을 토대로 내면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작가는 과거의 기억에서 재해석된 이미지와 작가만의 언어로 기호화한 작품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과거를 회상하면 그해 봄 아버지가 딸에게 진달래꽃을 꺾어 주었고, 딸은 좋아하며 그 꽃을 따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정송규 개인전 '회억-잊고 이어지는 오늘'을 선보인다.

정송규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천착한 '규방문화'를 재조명해본다. 전시에는 조각보 등 30여개 작품이 걸렸다.

2000년대에 들어 작가는 14년간 작품의 주제로 연구해왔던 누드를 과감히 내려놓고 규방문화에 심취해 이를 10여년간 연구했다. 규방문화의 대표적인 조각



김도영 작 '그리움을 그리다'.

드영미술관 제공

보에 대해 소재의 특성, 모양, 민화에서 표현되는 문양들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모티프로 발전시켰다.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들을 한뼘 한뼘 이어 붙이듯, 작가는 다양한 모양의 색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배치했다.

또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호처럼 그려 넣어 작가 본인과 여성, 어머니의 삶의 시간을 나타냈다. 조각보는 천을 넘어 하나의 화면으로 재구성된다.

전시명 '회억(回憶)'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경험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뜻을

가진다. 이때 과거는 희미해져가는 추억과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소환돼 지금과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정송규 작가는 동시대 '규방문화'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억함으로써 여성과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윤림동 미술관거리 끝자락에 있는 우제길미술관도 나다영 개인전 '마음조각'을 오는 23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나다영 작가는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인 회화작품(캔버스에 물감)과 달리 나다영 작가는 주전공이 의류학인 만큼 패션의 소재인 가죽을 여러 형태로 재구성해 작품을 완성한다. 가죽이 단순히 옷이나 가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예술로서 그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등산 길목에 자리한 의재미술관은 남종문인회의 거장인 의재 허백련(1891~1977)의 생애를 어록, 기록물, 신문기사, 사진, 작품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돌아본 기획전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자료전'을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8·15 광복절 기념 창작판소리 '그날'

10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광복절 기념 기획공연 '그날'을 개최한다.

이날 무대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투쟁을 했던 영웅들의 전기적 사실을 엮어 만든 창작판소리를 선보인다.

특히 '열사가'는 이준·안중근·유관순·윤봉길 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 만든 창작판소리로 박동실 명창에 의해 처음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번 기획공연은 이상호 명인, 양은주 명창의 '이준 열사가', 안중근 열사가와 정순임 명창의 '유관순 열사가'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순고한 희생과 일대기를 판소리로 전해 들을 수 있다.

정순임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며,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양은주 명창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으로서 판소리를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상호 명인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판소리장단 보유자이며, 현



재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고법만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장보영 명인은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연리지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에코자이저와 함께 지구를 지켜요!"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문산공동체·예술인 등 모여 노래 제작·칼럼 작성 활동

광주문화재단은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 문산마을공동체(대표 박태규)와 참여예술인 다섯 명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섯 명의 예술인 △마당극 배우(김혜선) △한국화 작가(오창록) △작곡가(김정은) △싱어송라이터(기드은) △영화평론가(박정수)은 스스로를 '에코자이저'라 칭하고, 문산마을공동체와 광주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코자이저는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만든 '우리동네 지구송(작곡:장지혜, 작사:장지혜, 장애란)을 홍보하고 있다. 매월 22일 '에너지의 날' 마을 주민들과 노래를 배워보고 불러보는 '지구송 챌린지'를 진행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 운동을 펼치는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산마을공동체와 참여예술인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마을활동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9월 중 유튜브 '문산tv'에 올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주제로 '나는 심청이다' 뮤지컬을 제작해 관객과 만나고자 한다. 중2병에 걸린 심청과 오염된 자연환경 때문에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린 심학규, 그리고 힙한 용왕과 무엇이든 너무 어렵게 알려주는 돌돌박사 등 재미

난 인물들이 출연한다.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수 예술인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칼럼을 총 세 편 작성하고 있다. 비평가로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과 담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제는 각각 '재활용과 민주주의', '친환경적인 소비', '동물과 공존하기'이며, 이를 SNS(인스타그램 2024 ecogizer)에 게재해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관련 칼럼을 비롯해 에코자이저 활동 내용들은 인스타그램 '2024ecogiz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예술협업팀 구성(매칭)을 통해 10개 기업·기관과 50명의 예술인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예술협업활동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남원에서 'How Fun 예술놀이터' 운영

이달부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어린이 문화 예술교육 콘텐츠를 남원에서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8월부터 12월까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ACC 어린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How Fun(하우펀)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ACC재단과 남원시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하우펀 예술놀이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콩' 2층 교육실에서 어린이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종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4일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작은 여름정원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여름정원 속으로'와 아시아 나라의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 등을 상상하며 나만의 입체 액자를 꾸며보는 '타고가는 아시아로'를 선보인다.

'하우펀 예술놀이터'는 남원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무료다. 교육은 매월 1일 남원시청 누리집(www.namw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5월 개최한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10'에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의 작가 연계 교육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남원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아시아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남원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격차 해소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